

주유소 가격공개 문제점 “폭주”

사이트 다운에 실제 판매가격과 상이 ... 정확한 원인규명 못해

정부의 석유제품 가격인하 프로젝트 1호인 주유소 가격공개사이트가 개통 첫 날 이곳저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예상하지 못한 접속공세에 사이트가 다운되는가 하면 비교기능이 아직 완비되지 못했고 사이트에 표시된 가격과 실제가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아직 운용능력이 정부의 의욕을 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4월15일 공개된 주유소 종합정보 제공시스템(www.opinet)은 오전 9시 개통 직후 몰려드는 네티즌들의 접속시도를 견디지 못하고 다운됐다.

운용을 맡고 있는 석유공사는 “공사의 사이트가 분당 최대 70만명이 접속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개통 직후 동시에 30만명이 접속하면서 사이트가 다운됐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KT에 의뢰해 긴급 시스템 복구에 나섰으나 네티즌들의 접속시도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후에도 접속이 어려운 형편이며 심지어 공사 내부의 시스템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직원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이트에 표시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도 동두천시 한 주유소는 공개사이트에 휘발유 가격이 경기북부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리터당 1539원으로 표시됐으나 실제로는 1699원에 판매했으며 인근 다른 한 주유소도 역시 공개사이트에는 휘발유 1579원이라고 게시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2개월 전부터 1679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차이를 지식경제부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아직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주유소에서 카드 결제 때 사용되는 단말기의 가격 세팅이 잘못돼 잘못된 가격이 공시될 수 있고 소비자들이 할인이 되는 각종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서비스 등을 이용해 싸게 결제해도 일반 판매가격과 다른 가격이 올라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격 정보는 신용카드 결제 등에 사용되는 금융 부가가치 통신망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라며 “올라온 가격을 검증하는 시스템도 함께 가동하고 있으며 원인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나 석유공사는 사이트에 접속하려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우선은 사이트의 안정적인 운영에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4/15>